



김수영, 「폭포」

- 갈래 : 자유시, 주지시
- 성격 : 관념적, 상징적, 현실 참여적
- 제재 : 폭포
- 주제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EBS

해제

이 작품은 폭포의 속성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한 시이다. ‘떨어진다’는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정신적 지향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한 삶의 태도를 거부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구성

- ▶ 1연: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
- ▶ 2연: 고매한 정신을 지닌 폭포의 속성
- ▶ 3연: 끈은 소리를 내는 폭포의 모습
- ▶ 4연: 끈은 소리를 이끌어 내는 폭포의 선구자적 속성
- ▶ 5연: 나태와 안정을 거부하는 폭포의 모습



김수영, 「폭포」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 '고매한 정신', '곧은 소리'를 상징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 폭포의 물결 - 자유의 이미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현실적·세속적 가치나 목적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 일관되고 지속적인 폭포의 속성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 높고 홀륭한 폭포의 속성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 아름다움, 희망 ↳ 인간적 유대 ↳ 부정적 현실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 정의롭고 진실된 양심의 소리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 소리를 부른다

↳ 곧은 소리로써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폭포의 선구자적 정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 부정적 현실에 만족하는 소시민적이고 안이한 삶의 태도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

↳ 폭포의 절대적 자유로움



작품의 특징

- '떨어진다' 시어 반복 : 운율 형성, 의미 강조
-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강조
-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하게 의미 제시
- 구체적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추상적 내면세계 형상화



이형기, 「폭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관념시
- 성격 : 관념적, 서정적
- 제재 : 폭포가 있는 산
- 주제 : 폭포에 내재된 삶의 치열성, 전율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

#EBS

해제

이 작품은 폭포에서 떠오르는 관념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벼랑에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시퍼런 칼자국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단말마'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폭포의 모습에서 석단기에 추락하던 장수잠 자리를 떠올리며, 폭포의 물방울을 박살 나는 장수잠자리의 '복안'에 비유함으로써 화자가 인식하는 비극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인식

구성

- ▶ 1연: 시퍼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
- ▶ 2연: 벼랑 위에 다시 솟는 벼랑
- ▶ 3연: 장수잠자리의 추락과 같은 폭포
- ▶ 4연: 박살 나는 폭포의 물보라
- ▶ 5연: 시퍼런 빛줄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



이형기, 「폭포」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을

↳ 청자를 상징하여 대화체로 표현(말을 건네는 방식 사용)

어깨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형성함(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함)

질주하는 전율과 /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 /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 바람에 형성된 폭포의 모습

그대 아는가 /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날으던 /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형성함(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함)

나의 자랑은 자멸(自滅)이다 /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 역설적 인식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 박살 나는 맹목(盲目)의 물보라

↳ 떨어져 흩어지는 폭포의 물방울을 장수잠자리의 눈이 박살나는 형상을 그려냄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 2억년 묵은 오래된 칼자국과 같은 고통

* 단말마: '임종(臨終)'을 달리 이르는 말.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작품의 특징

- 동일한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을 형성함
-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형식적 통일감을 주면서도 3연에서 도치를 통해 변화를 줌으로써 단조로움을 벗어남
- 1연의 내용을 5연에서 변형하여 배치함으로써 형태적 안정감을 주며, 리듬감을 형성함.